

유럽 건축·문학·예술에서 삶의 의미를 찾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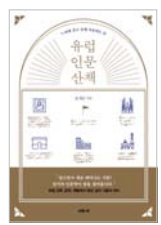
유럽 인문 산책

윤재웅 지음

여행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경험에 따라 관점에 따라 여행을 바라보는 시선도 각양각색이다. 그럼에도 여행의 일반적인 모습은 낯선 곳을 걸으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여행의 경험과 기록은 공간에 대한 단순한 관찰이 아니다. 감각과 지각이 만나 오래와 새로가 포용하는 삶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윤재웅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의 말이다. 윤 교수가 유럽의 작은 마을과 대도시를 걸으며 깨달은 사유의 결과물을 책으로 묶었다. “느리게 걷고 깊게 사유하는 길”이라는 부제가 붙은 ‘유럽 인문 산책’이 그것. 건축과 문학, 시와 예술을 가로지르는 인문학적 시선과 통찰이 반짝인다. 비록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유럽의 길이 막히다시피 했지만, 이면에 드러워진 문명의 찬란한 힘은 여전히 경이감을 갖게 한다.

저자의 여행은 단순한 공간에 대한 관찰이 아니



다. ‘감각과 지각이 만나 오래와 새로가 교섭하는’ 삶의 현장이다.

“느리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일이 잘 어울려야 한다는 걸 깨치게 되었습니다. 의식주가 삶의 물질적 기반이라면 느낌과 생각과 표현은 정신의 디자인이 아니겠는지요. 표현하지 않았다면 살아날 수 없었던 감각과 기억과 상상력은 제겐 큰 기쁨입니다.”

이탈리아의 도시는 폐허에서 피어오른 지성의 힘을 보여준다.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시칠리아, 살리나에는 고대 그리스부터 유럽 르네상스에 이르는 찬란한 문화가 곳곳에 스며 있다. 특히 로마의 돌길에 대한 윤 교수의 단상은 ‘물류 신경망’으로 표현된다. 그곳은 물량과 속도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비정한 인프라로, 질기고 부드러운 가족신이 필요했을 거라는 얘기다.

저자는 우유, 버터, 신발은 소들이 인류에 주는 선물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유와 버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발은 ‘슬픈 선물’에 다름아니다. 만약 돌길이 없었다면 소의 가죽을 벗기는 기혹함도 없었을 거라고 되뇌인다.

‘프랑스 문화의 꽃이자 유럽문화의 자존심’ 루브르 박물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채롭다. 소장품만 40만 점에 이르는 세계 최대 박물관으로 ‘함무라비 법전’, ‘스핑크스’, ‘밀로의 비너스’, ‘모나리자’ 등을 수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저자의 땀이 꽃핀 것은 유리 피라미드. 입구의 큰 유리 피라미드와 아래의 역 피라미드, 그리고 이들을 받치는 작은 피라미드 등 모두 세 개가 주는 역동적 아름다움과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공존은 경이로움 그 자체다.

바다 위의 외로운 수도원 몽생미셀은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신성한 미카엘 천사의 산’이라는 뜻의 수도원은 80미터 험한 암벽 위에 세워져 있다. 708년 당시 마을 성당 오베르 주교의 꿈에 외딴 섬 암벽에 예배당을 지어라는 계시가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신비로운 설화보다 돌바닥에 새겨진 숫자들을 주목한다. 거기에는 노동의 양만큼 급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돌에 숫자를 새겨 나뭇배에 실어 보냈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책에는 스페인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연도 담겨 있다. 저자는 가장 험한 구간인 론세스바예스에서 느끼는 고독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먼저 용서하고 인사하고 사랑하기는 사소한 일 같지만 사실은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인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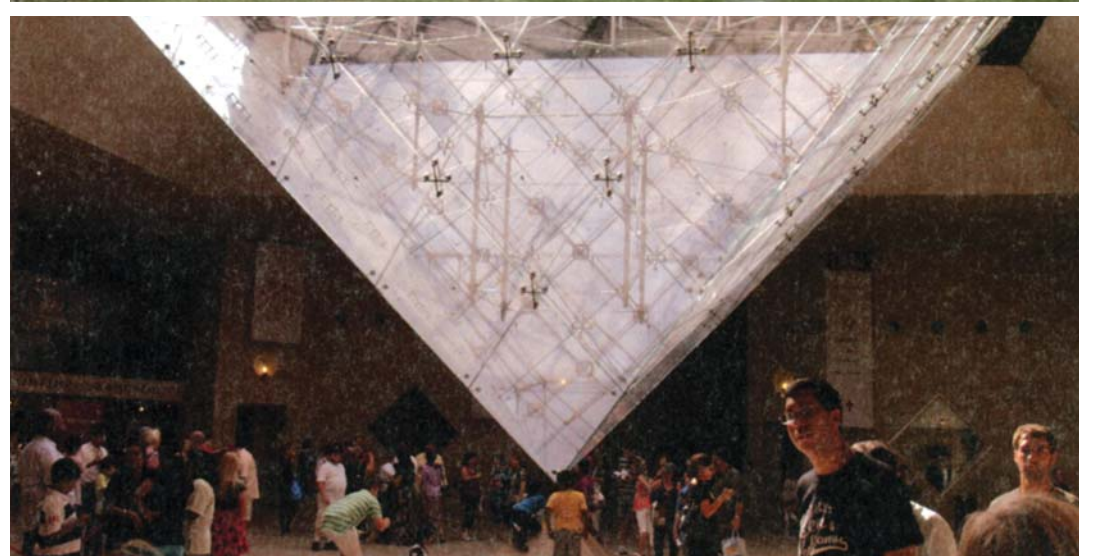
한편 책 군데군데는 헤밍웨이, 단테, 베케트 등 작가들의 삶과 문학이 녹아 있어 잔잔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더러는 알베르 카뮈의 문장을 읽거나, 어느 지점에서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연상케 하는 인물을 만날 수 있다.

저자의 인문 산책이 도달하는 지점은 결국 자신과의 만남이다. 걷기의 인문학이 사유로 귀결되는 이유다.

“순례길을 걸으면 스스로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기회가 생기지요. 동행하는 이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가운데 나와 대자연이 고독하게 마주하는 경험 말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 되어 점점 더 작은 점이 되어, 마침내 스스로가 무화되는 겁니다. 무화는 없 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길 가는 이의 본질은 고독입니다.”

〈은행나무·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복원사업이 진행중인 로마의 상징인 콜로세움(위)과 내부에 숨어 있는 역피라미드, 그리고 하나의 작은 피라미드가 인상적인 루브르 박물관.

〈은행나무 제공〉

세종이 꿈꾼 나라

한글은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많은 언어 가운데 가장 과학적이고 기능적인 글자다. 이는 전 세계 언어학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컴퓨터와 디지털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글은 기능적 우수성은 이 같은 환경에서도 두드러진다. 자음은 왼손으로 모음은 오른손으로 칠 수 있는 문자는 한글뿐이라고 한다.

우수한 한글 탄생을 조명한 책이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한글은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공동연구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세종의 번뇌’, ‘대마도는 우리 땅’의 저자 이석제 연세대전외과의원 원장이 펴낸 ‘세종이 꿈꾼 나라’는 한글 창제의 진실과 실록을 통해 읽는 세종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저자는 한글 창제의 실상을 알고 싶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힌다. 그러나 실록에 관련된 기록은 거의 나오지 않고 딱 한 번, ‘임금께서 훈민정음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셨다’(세종 25년 12월 30일)고 언급돼 있을 뿐이다. 세종은 극비의 보안을 유지하며 10년 세월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전력을 쏟았는데 이면에는 수많은 생각과 고뇌, 불면의 밤이 자리했고 백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저자는 국방의식에 투철했던 세종의 유비무환에 대해서도 감탄한다. 여진을 정벌하거나 왜구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을 한 데는 병법의 통달, 진법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무술 훈련, 신무기 개발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 첨단에 이르는 전문기구를 발명한 세종의 과학적 인식과 치밀함도 발견한다.

당시 출산 휴가를 법제화한 것은 인권의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임신한 시녀들과 그 남편 되는 사람들에게 출산휴가를 보내주고 노인들을 궁중에 공경해 공에서 잔치를 베풀 일 등이 그러하다.

〈인간과자연사·2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종이 꿈꾼 나라

오웰의 코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코는 속이지 못한다’. 시대와 사회를 넘세라는 키워드로 기록한 이석적인 책이 출간됐다. 영국의 평론가이자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의 영문과 명예교수인 존 서덜랜드가 펴낸 ‘오웰의 코’가 그것.

저자는 자신의 코 세포막이 시들던 시기에 조지 오웰의 작품을 다시 천착한다. 문학이 주는 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는 오웰의 많은 글에서 생생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문해비평을 통해 한 사람의 생을 맡았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엮었다. ‘뉴요커’는 “탁월하고도 편집정적인 전기 작가 존 서덜랜드는 오웰을 새로 읽어 냈다. 그리고 냄새에 대한 오웰의 천부적인 감각을 알아차렸다. 최근 자신의 후각을 잃은 존 서덜랜드는 오웰 삶의 코를 찌르는 랜드마크들을 이 책에서 하나하나 밝혀 준다”고 평한다.

지난 2012년 후각 상실 후,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스트레스로 고생하던 저자에게 조지 오웰은 제인 오스틴이나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다른 ‘실감’으로 다가왔다. ‘팬스필드 파크’와 ‘노인과 바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984’는 냄새나는 작품이었다. ‘1984’는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4월 추위를 피해 빅토리 맨션의 유리문을 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건물로 들어서자 그를 반기는 것은 “살은 양배추와 오래된 누더기 발판 냄새였다. 원기를 회복하려고 한 잔 따른 빅토리 진은 “중국 쌀 증류주같이 역겹고 느글거리는 냄새”를 풍긴다.

이처럼 저자는 오웰의 소설을 읽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냄새 서술 비평’이라는 이석적인 방식을 택한다. 그는 오웰의 문학과 산문 곳곳에서 배마의 티크, 영국 목초지, 다양한 빈곤 냄새, 타자기와 덜 마른 잉크 냄새를 찾아내 알려준다.

〈민음사·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존 서덜랜드 지음, 차은정 옮김

런던의 헨델

독일 태생인 헨델은 25살 때 런던을 처음 여행하고 그곳에 매료돼 삶의 뿌리를 런던으로 옮기면서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에서 조지 프리데릭 헨델이 된다. 그는 런던에서 50여 년을 살면서 ‘사제 자독’과 ‘줄리오 체사레’, ‘리날도’, ‘알시나’ 등 오페라를 포함한 수많은 걸작을 작곡했다. 고향을 떠나 런던에서 살다 그곳에 묻힌 헨델을 조명한 ‘런던의 헨델’이 출간됐다.

지휘자이자 음악 감독인 저자 제인 글로버는 헨델의 오페라를 중심으로 그의 런던 시절을 이야기한다. 세계 여러 무대에서 헨델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지휘했고 오페라 ‘메시아’의 경우 100회도 넘게 공연한 저자는 18세기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헨델의 작품을 분석하고 역사적 사실을 통해 그의 런던 시대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헨델은 평생 46편의 오페라를 작곡했다. 말년에 ‘메시아’로 작곡가로서의 명예에 정점을 찍고 삶을 마감했는데, 저자는 헨델의 호기심 많고 활발한 성격이 오페라 작곡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젊은 시절 약 4년간 이탈리아에 머물며 보고 익힌 오페라가 훗날 작업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헨델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찰스 버니 박사의 말을 인용해 그가 영국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설명한다.

“헨델은 영국 태생은 아니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영국 국민을 위해 썼다. 그는 50년 이상 영국 국민의 취향을 발전시키고, 교회와 극장 그리고 음악실에서 영국인들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훌륭한 음악을 영국인들에게 소개했다. 유행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서가 박수갈채를 이끌었고, 영국인들은 다른 기준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다.”

〈뮤진트리·2만4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제인 글로버 지음, 한기정 옮김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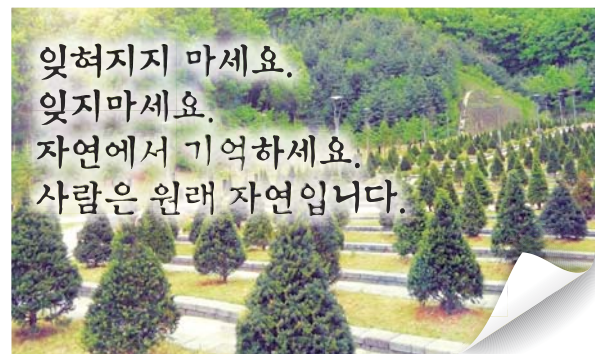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